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김동선
편집인 겸 주간 김형필
편집장 허남헌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전화 ☎7128(직통)
131 서울동대문구 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우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3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 다 253호)

제374호
<주간>
1983년 9월 9일
매주 금요일 발행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우리말의 쓰임새 ㊸바장거리다

<그러나 나는 소처럼 기다리기로 했다. 바장거려야 이미 소용없는 나의 선택이 아닌가> (석일균지음「흐르는 물처럼」)에서 바장거리다는「바장이다」의 방언이다. 바장이다는 부질없이 가까운 거리를 오락가락거닐다, 자꾸 머뭇머뭇하다이다. (큰말은 버정이다.) 바장나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결딴나다(사물이나 현상이 아주 망그러진 상태, 살림이 망한 상태)는 말의 방언으로 바장이다와는 뜻이 영다르다.

제12회 모의U.N.총회

「핵 확산방지와 평화적 이용」

15개국 참가, UN공용어등 8개국어 사용

전통 학술행사로 대학생 순수학문에 기여

작년에 부활되어 올해12회를 맞는 본교 주최 전국대학생 외국어 모의 UN 총회가 9월17일 (토) 오후 5시 숭의 음악당에서 열린다. 모의 UN총회는 본교의 전통적학술 행사로서 1959년 처음 개최되었는데 60년부터 62년까지 4·19와 5·16으로인한 집회 불허로 휴회, 71년과 72년의 계엄령과 위수령으로 휴회, 74년부터 81년까지 긴급조치및 학내사정으로 휴회 등 잦은 휴회가 있었으나 작년에「국제 테러문제」를의제로 부활되어 교내외각계의 많은관심과 호응을 얻었었다.

「대학생들의 순수한 학술연구를 통해 유엔의 본질과 의의를 밝히며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변모하는 국제정세에 대응, 외국어 연마를 추구하여 한국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열리는 모의 UN총회는 이번에 개발도상국에의 핵확산 방지제도문제와 관련「핵확산 방지와 평화적 이용」이라는 의제가 상정되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2명으로 구성된 모의 UN총회 준비 위원회는 그간 외교안보 연구원, 국회동문들, 외무부 UN과등에서 정보및각종 중요자료를 수집,「발언요지및 참고 자료집」을 발간하고 8월6일까지 신청원고를 마감, 원고 심사및 스피치 테스트를 거쳐 8월15일 출연진을 최종 확정하고 방학기간을 활용, 일주일에 두번씩의 리허설및 세미나를 여는등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모의UN총회에는본교를 비롯 8개교 총 15개국이 참가하는데 사용 언어는 UN공용어인 영어·불어·서반아어·중국어·러시아어·아랍어등과 더불어, 의제와 관련이 많은 국가를 선택함에 따라 기타어로 독일어·일본어가 첨가 사용된다.

각국대표와 사용언어및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각국대표및 사용언어

정일후 (서강대 영문·3 한국·영어), 황윤영 (본교 E·3영국·영어), 김용규 (본교 E·3미국·영어), 김정윤 (경희대 ·가정계열·1캐나다·영어), 김종성 (경희대 경제·4 인도 영어), 정혜심 (경희대 원예·2남아공·영어), 노정호 (서울대 신방·3이스라엘·영어), 심혜경(이화여대 불어교육·3프랑스·불어), 박병흠(계명대 불문·4알제리·불어), 장재선 (본교S·3아르헨티나·서반아어) 권순철(연대 정외·2중공·중국어), 김정호 (본교 R·3소련·러시아어), 홍영표 (본교 A·3이란·아랍어) 나영훈(본교 G·3독일·독일어), 이윤규(고대 경제·2일본·일어)

▲심사위원

김덕 (본교 정외과 교수) 조재영 (본교 영어과교수) 여동찬 (본교 불어과교수) 최종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호재 (고대 정외과 교수), 김영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철학과 용인 모집 확정

철학과생 반대의사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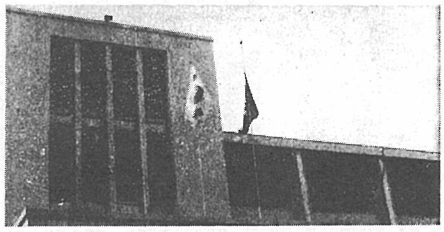
84년 문리대의 용인 이전과함께 내년부터 철학과 신입생을 용인캠퍼스에서 모집한다는 안(案)이 확정, 밝혀졌다. 이에 철학과 학생들은 일제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있다.

「84년 문리과대학은 용인캠퍼스로 이전하여 수업할 예정이나「철학과는 제외」한다」는「지금까지의외대안내공표(公表)와는 달리」이런결정이 내려지자 철학과 학생들은 이문캠퍼스에서의 신입생모집을 계속 주장하고있는 것이다.

올해들어 갑자기「철학과 용인모집설」이 나돌자 철학과 학생들이 개학과 더불어 철학과장, 문리대학장, 기획실장등에게 수차례에걸쳐 이것에 대해 문의한 결과 학교측의 공식입장은 한번도밝히지 않았으며, 9월7일 김영조 교무처장은『행정상의 편의로 검토중』이라 하였고 장욱철학과장은 학교에서는『84년에는 본교에서 모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한 철학과 학생들은 9월8일 오후 문교부에 의해 확정된 학교의 이같은 결정사항을 접하고 학교측의 지금까지의 입장과 판이하다고 판단하고『이미 6월경에 올린 증과·증원신청에 이 사항은 포함되어 있었고, 단지 문교부의 승인만 기다리고있었을 텐데,「검토중」이라고 일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말하고『철학과 전체가내려갈때까지 본교에서 모집하도록 해줄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문제를 협의하기위해 학교측은 긴급 교무회의를 잇달아 열어「문교부지침대로 시행할것」을 재삼 결정했다. 9월9일 철학과 학생들은 오후4시부터 시작된 문리과 대학장, 철학과장, 기획실장과의 면담을 통해「학교측의 공식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실무자들은「84년 신입생모집을 용인으로한 행정상 편의」때문이라고 했으며, 사실을 밝히지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구체적으로 잘모르고있던 사실이었기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철학과 학생들은 구체적 답변을 요구, 학생대표들이 문리대 학장및 총장과의 면담할 것을 약속받았다.



현충일도 아니면서 태극기를 한 폭이나 내려달아야 했다 현충일도 아니면서 땅을 치며 통곡했고 묵념을 올려야 했다. 피도 눈물도 말라버린 크레믈린의 만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북양 찬 바다속으로 수장(水葬)해 버렸다. 인류 양심의 공분은 하늘을 감동시켜 천둥과 번개로 야만적 행위를 신랄히 경고했고, 억수같은 초가을 비로 269위 방황하는 혼령의 눈물을 대신했다. 웃깃을 여미는 사이에도 불근 쥐어진 두 주먹은 펴질줄을 모른다.

이문초점

2학기 신입생 서클가입 난조

홍보부족과 1학기 가입규제로

각 서클은 2학기에들어 뒤늦은 신입생 모집에 나섰으나 인원확보가 상당한 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2학기에 정식 가입이 허용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클을 찾는 학생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서클은 한학기간 신입생을 20~30명정도 가등록 접수시켰으나 실제 활동 인원은 10명내외에 불과해 2학기때의 저조한 가입이 계속될 경우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각 서클은 이런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연중 가입 가능」등의 방안을 강구하고있다.

1학기 가입학생과 2학기가입학생의 융화문제와 전수나 연습을 요구하는 스키·외인부대·조정반·수영반·핸드볼반의 문제등을 쉽게 간과할수 없는 일로 보인다.

한편 서클관계자들은「서클활성화에 위축되지 않도록 1학기에도 가입을 허용하고 이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해외동문장학금답지

이번 학기도 해외 동문들의 장학금이 계속 답지하고 있다.

현재 본교에 들어온 장학금을 살펴보면, 81년부터 매학기 보내오는 파나마동문회에서 이번에도 500달러를 보내와 서반아어과 1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북가주동문회 (전우철외 9명)에서도 1,350달러를 보내와 성적이 B학점 이상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4명에게 지급될것이라고 한다.

한편 개인으로서는 Tu과 박준모동문이 사우디에서 55만원상당의 장학금을 보내와 현재 터어키어과에 예치중에 있으며 다음학기 터어키에과 성적최우수 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통역협 장학금 지급

9명에 135만원

본교 학생통역협회는 9월8일 (목)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재학생 9명에게장학금 15만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통역협회는 지난 1년간 대외 각종통역및 번역활동에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난 9월2일 신청을 마감,「성적이 B학점 이상이고, 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여 총135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동문장학금 지급예정

12명에 각각 30만원

총동문회는 매학기마다 지급하는 총동문회장학금을 이번 학기에도 추가등록기간인 9월17일까지 12명에게 30만원씩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하게된 장학생은 학과장 추천서와 B+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중에서 교내의 여타 장학금 혜택을 받지않은 학생에 한하여 모교재직 동문교수중에서 총동문회가 위촉한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할 예정인데 총동문회는 앞으로도 장학금의 액수와 수혜자를 점차 늘여갈 방침이다.

오지리 도서관 개장

도서 3,000여권 소장

지난9월초 국내에선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도서관이 본교 본관 2층에 개장되었다.

본 도서관은 본교 독일어과의 브라이테네더 (Breiteneder) 교수가 지난 1년간 자비를 들여 마련한 서적과 오스트리아정부에서 기증받은 서적등 총 3,000여권의책을 구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좌석 4개등도 배치해놓았다.

한편 여기에 소장된 책은 오스트리아를 비롯 독일어권의 문학,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등 다방면에 걸친 각종 서적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 독일어과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의 학구의욕을 진작, 독일어권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수도

▲2학기 서클가입률저조 — 「심리전」이 성공한 도양이지?

▲철학과 용인 모집확정 — 아닌밤에 홍두깨

2학기 학사 일정

9월17일	모의 UN 총회
9월22일~10월2일	원어 연극제
10월10일~20일	제2학기 중간고사
10월17일~20일	3학년 수학여행
10월24일~26일	종합학술제
10월27일~30일	외문축제
10월27일	제2학기 중간고사 성적보고서 제출 마감
1월31일	84학년도 졸업예정자 졸업논문 제출 마감일
11월15일	총단선거일
11월17일~18일	84학년도 제1학기 예비수강신청
12월5 ~17일	2학기 기말시험
21일	동계방학 시작

종합학술제준비활발

각단대별 논문 및 모의행사

오는 10월 하순에 개최될 종합학술제에 대비 법정대와 사범대는 학술논문을 모집하고 있으며 상경대와 문리대는 각각「모의 주주총회」와「모의 노벨상」을 비롯 기타 심포지움과 세미나등을 계획하고 있다.

각 대학별 계획을 보면 법정대는「발전적 시각에서 본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주제로 학술토론회에 발표할원고를 모집하고 있고 상경대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모의 주주총회를 비롯 심포지움및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11월 4일엔 학술토론회의 개최를 계획하고있어 이 때 발표할 논문을 9월30일까지 모집하고있다.

사범대는 사범대 재학생과 교육학 부전공자를 대상으로「어제와 오늘을 통하여본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나아갈길」,「타국의 교육제도와의 비교를통한 한국교육의 현재상황」및 기타 교육문제를 주제로 역시 9월30일까지 논문을 모집하고 있으며 문리대는 아직 확실한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모의 노벨상」을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방학중 부직 다소 늘어

거리질서·방범요원 주종

지난 하계 방학 중 학생처를 통하여 알선된 아르바이트 인원은 총 275명으로 지난 해의 243명에비해 13.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처에서 밝힌 통계에따르면 주로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 은행창구를 통해 추천된 직종중 거리질서 봉사요원이 99명, 방범대원이 8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그밖에 사무보조와 은행창구안내, 번역및 통역업무, 피서지질서요원등 단순직종으로 보수는 하루 평균 4시간에서 8시간 근무에 일당 5,000원에서 7,500원이 지급돼 한달평균 15만원정도에 이른것으로 밝혀졌다.

제21회

외대문학상 작품 현상모집

작품마감 10월31일

제21회 외대문학상의 원고를 현상모집합니다. 박토의 문화여건에서 대학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룩하기 위해 본보에서 마련한「외대문학상」은 한국문단에 기라성같은 문재(文材)를 배출했으며 꾸준히 여러분의 지성과 가열된 문학도를 발로해 한국문단에 투영시키고자 합니다.

잠자는 문학혼을 일깨워 예명(銳明)의 눈동자로 살펴본 모든것을 원고지에 옮겨보십시오.

외대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모집부문: 시 (5편이상) : 당선작 상금 14만원
소설 (60매내외) : 〃 18만원
평론 (50 〃) : 〃 14만원
번역 (50 〃) : 〃 14만원

접 수 처: 외대학보 (학생회관309호) 문화부

심사위원: 수상작·수상자와 함께발표

외대학보

빈의자

간과해서는 안될일

▲KAL기격추. 일주일만에 채써 밀지않으려는 유족들의 가륵한 기대를 뒤로 하고 합동위령제가 올려졌다.

그러나세계는아직도이충격을쉬 가누지못한채 열화(熱火) 같은 공분(共憤)으로인간무시의극한타락에 대한 강한 경고를하고있으며 우리 또한 근대이후 약소국의 설움을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으로분노의 격정이 가시질않고 있다.

도덕과 윤리에 앞서 오직「주먹」만이 통하는 국제사회의 참혹한 현실의확인과「힘의 우위」앞에 무력한「인간존엄」을 보는 것같아 인류의 양심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지구촌의「평화공존」에 적신호를 가져다준 이번사태는 과연 형언할수 있는 모든언어로 비난할 만하다.

▲세계는 드디어 야만적행동에 대소보복조치를 서두르기에 이르렀다. 소련과 직접 외교관계가없는 우리로서는 매일 외신텔렉스를 받으며 속시원할만한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결국 자국(自國)의 이익을 벗어날수없는 것이어서 실망도 크다. 각국의 계산이 앞선 대소 대응에서 소련을 향한 분노가 한결같으면서도 그속에 담긴 국제 정치의 냉혹한 속성을 보고있다. 어느것하나 격한 감정으로만 대해 많은 것을 잃고 잊어버리거나 누구를 쉬 의존하는것은 좋은일이 못된다는것을 새삼느낀다.

▲가장 지혜로운 대응이 절실한 이때 또다른 우를 범하는 것은 없는가? 처음 사건을 접한 우리는 충격과 분노와 설움으로 뒤범벅이 됐다. 그러나 조기를 먼저 게양한 곳은 타국이었고 우리는 어느 한순간 매스콤의 웃음 만발한 쇼 프로를 들으며 조기를 바라봐야 하는 아이러니를 겪었다. 「KAL기를 확인하고 쐈다」는데「우리의 분노로 하늘이 찌를 것 같으나, 우선 국력을 길러야한다」고만 했다. 아무런 대응없는 이런 저자세로 볼때「털어서 먼지안나올 사람 없다」지만 우리의 사회·정치·경제적 여건에 먼지라도 있으면 닦아내야 할 판이다.

▲한편, 비무장 여객기에 미사일 세례를 가한 소련의 비인간적인 행위와「냉전의희생양」「이된 269명의 영령들이 태평양 어딘가를방황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대소선전포고」등 격앙된 분노는 오히려 당연하다. 그러나 염려되는건 북받치는감정으로쉬쉬카타르시스 해 버릴까하는 것이며,「겨를이 없다」는 이유로 유보된 국내의「큰일들」이 오래 묵혀질까하는 것이다.

▲이 어려운 시절에 구세주라도 나타나 줄 것을 애써 믿으며 밀려온 외환(外患)을 무난히 극복해내던 선인(先人)들의 지혜가 새삼 아쉽다. <서정기>

韓國의 成就人 1

고통과 환희로 엮은 久遠의 노래

- '가고파'의 작곡가 金東振선생의 외길 70년 -

1973년12월10일— 필생의 염원이던 가곡 '가고파' 후편의 작곡 발표회를 마치고 지휘대를 내려오던 나의 발길은 연주회장을 진동시키는 요란한 박수 갈채 속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환호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 고향 安州, 그 청천강 모래벌에서 키운 청운의 꿈을 음악속에 불사르며 '가고파' 전편을 작곡 한지 어느덧 40년. 불가능하게만 생각되던 20대의 감정과 60대의 감정이 무리없이 交感돼 내 인생의 값진 한 매듭을 지었다는 가슴벅찬 성취의 기쁨 때문이었으리라.

생각컨대 나와 음악과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그 운명과의 만남을

◇1973년 12월 10일 숙명여대 대강당에서 베풀어진 가곡 '가고파' 후편 발표회에서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는 작곡가 金東振교수

기쁨 속에 탄주한 한 마당 열정의 독주회였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처럼, 때로는 거센 격류와 고통 속에서 나의 영혼은 항시 아름다운 音域을 찾아 기웃거렸고, 남이 무엇이라고 하건 나의 길을 개척하고 창조하며, 새로운 楽想을 가다듬는데 온갖 정열을 기우려 왔다.

그렇게 藝苑의 외길을 치달려 어언 70 古稀 — 항상 물에 씻긴 흰달처럼 한 점 부끄럼없이 살자던 젊은 날의 소망을 위해 나는 오늘도 피아노 앞에 앉는다. 내 인생에 있어 '가고파' 이상의 굵은 또 하나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

김동진

誠實하고 다부진 젊은이의 일터

國際

國際商事/聯合鐵鋼工業/國際綜合建設/元豊産業/國際綜合機械/東西證券/國際紡織/國際製紙

朝光貿易/國際商船/國際通運/聯合物産/豊國化學/新東製紙工業/東宇産業/成昌纖維/國際土建/國際綜合엔지니어링

○…요즘 우리주위에는 70년대에 대한 평가가 사회 제분야에…○
○…걸쳐 시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세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다음세대의 도약과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글에…○
○…서는 우리 생활속에 깊게 배어있으면서도, 무관심하게…○
○…인식되어졌고, 비판없이 수용되어온 노래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현실을 호흡할 수 있는 노래는 어떤 것인가…○
○…를 알아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이 기 진

<블러코·3년>

머리말

『노래가 무엇이냐?』『우리에게 있어서 노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이런 막연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역시 막연할 수 밖에 없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노래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노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다소는 작도가 다른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역사이후 실로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형태로 노래는 존재해왔다. 때론 의식(儀式)의 수단으로, 오락의 수단으로 때로는 사회적, 정치적인 의미로 노래는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오면서 노래는 그 쉬움과 전파성이라는 특징을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큰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즉 그 한계로서, 현대의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중가요가 거나힙경로로 감각적, 퇴폐적, 위락적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멜러디, 리듬, 가사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전체적조화가 아닌 괴성이나 욱적불명의 리듬, 퇴영적인 감수성만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이 그것이다. 이런 심각한 현실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우리의 전통음악 재창조와 건전한 가사를 통한 올바른 노래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모임과 노력을 한 대개 70년대초의 포크송으로 출발했던 김민기, 한대수 를 기점으로 현재의 각대학의 노래서클인 「메아리」「한소리」「시나위」등과 젊은 국악인들 젊은시인들 등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수있다.

즉 그들은 새로운 노래의 혁신을 위해서 대부분 발랑난시의 퇴영적이고, 자극적인 유행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요의 시정을 위해서는 민인들 특히 시인들이 건전한 가사를 만들어 내는데 힘써야 하고, 또한 서양의 Pop의 영향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극악적 전통에 의한 대중가요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주 「시와 경제」 좌담회에서) 따라서 그런 운동의 시발점을 형성하는 김민기, 한대수를 논하기 앞서 그들음악의 역사적맥락을 먼저 살펴보아야 겠다.

일제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민족에게는 대중 다을 세부류의 노래가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우리민족 고유의 애환과 정서를 담은 민요였고 둘째는 썩썩한 기상과 독립의 의지, 암울한 시대상황등을 담은 독립군가계통의 노래였으며 (사나이, 거국가, 희망가, 선구자등) 세째로는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을 특징으로 하던 기생들의 노래였다. (이는 후에 서양음악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의 대중가요가 되었다고 한다. 주로 봉락류의 노래가 주를 이루었음)—(주)김계성 론—

이중에서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두번째의 독립군가이다. 즉 노래란 어떤형태로든, 그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역사의 주체인 민중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 분노희망 등을 부영하는 것이라 할때 마땅히 두번째 유형의 노래가 현실에있어서 대중가요와같이 전적으로 외국의 개인의 자유성, 독립성, 인격성의 특징에 허부와 나그네주의라는 그자신의 세계를 바탕으로 희망찬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비처는 새내양/창세의 첫을 음/이모든 것은/나의 새세상/뛰어라 염소야/새날을 맞으려/첫 발자국 들기전에

<하룻밤에서>

처음 고국에 돌아와서의 희망에 찬 그의 모습이 잘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새태양과 첫을 음을 통한 새날의 암시는 작자의 고국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신및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 즉 이는 작자가 미국적 상황과 한국적 상황의 이질성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 했음을 보여준것이며, 그가 우리의 상황이 개인적인 힘 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임을 인식 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이런 시도는 당시의상황에의해 묵살당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더 이상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못한다. 즉 당시의 억압된 사회적분위기에의해 그는 자신행위의 한계와 좌절을 느끼는 아픔을 맛이한다.

…슬레퍼폰소리여/나도자유의 몸이여/난 살고싶소/난세상을 버려요…<욕이의슬픔중>

여보게 나그네 그대/나는 외롭다/내고향 어드메 있소/나는 골라서/나의 친구여 나를 보게나/부슨 할 말이 있다고/쓰라린 자유의 길에 나는 지쳤다<쓰라린에서>

그는 외적인 강제에 처하자 내면적 외지로서 강력히 울부짖는다. 즉 박신은 자유로운데 아직도 이땅위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벌써 파괄하고마는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그는 「나그네길」에서 자신의 고향 즉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상실해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쓰라린 자유의 길에 나그네길에 지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의 좌절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

물좀주소 물좀주소/목마르요 물좀주소/그비만 온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리/아! 그러나 비는 안오네

<물좀주소에서>

그의 마지막 음성이 처절하리만치 애타게 드러나보인다. 비만 다시 온다면 다시한번 힘차게 일어서 보겠는데 그러나 비는 오지않는 절박함. 모두가 그를 외면해버린 슬픔은, 안타까와하는 그의 모습이 처절해 보인다.

…오면오고 가면가고/내마음 난들바/오면오고 가면가고/내마음 난몰라/ (하략)

<오면오고에서>

이것은바로 한대수가부르짖은 이땅위의 사람이 아닌 단지 지나가는 한낱 나그네일 뿐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인 것이다.

위에서 대중 한대수의 작품을 통해 그의 작품세계를 살펴보았듯이 그의 시도는 실패작이었다. 그는 결국 미국의 hippie를 꿈꾸어 이땅에 상륙, 그의 세계를 접목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당시의 상황에 의해 거절되고 말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린 나그네였던것이다.

즉 이런 모든 결과를 두고 생각해볼때 한대수의 함게는 한국적상황이란 복수한 상황에의 비적응이란 측면과함께 그는 이땅위에서 자라지 않은 탓으로 이땅인이었다는 측면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좀며 치열하고 투철한 한국인이 되지못했다는 것이 그의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었던것이다.

<지면상 ‖김민기론은 생략>

맺음말

위에서 미흡하나마 한대수란 인물을 통한 70년대의 우리의 상황과 더불어 그들의 작품세계를 살펴보았다. 치열하게 싸움을 지속했던 그들의 뒤를 이어 요즈음 각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음악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젊은 국악인들과 시인 종교인들을 중심으로도 새노래, 우리노래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인 듯싶다. 본명 우리현실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요가 우리에게 좋은영향보다는 나쁜영향을 더많이 끼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적불명의 노래와 요란한 몸짓과 괴성으로 대중들을 현혹하는,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외국음악이 우리의 주체성 마저 손상시키면서 그로 인해 우리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한 일이다.

국적 불명의 노래와 요란한 몸짓과 괴성으로 대중들을 현혹하는,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외국음악이 우리의 주체성 마저 손상시키면서 그로 인해 우리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한 일이다.

한대수 노래를 중심으로

연, 공해, 범죄, 비지항적 문화등 새로운 사회문제의 대두는 사회발전에 커다란 암적존재가 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소위 통키타부대로 불리는 Fork song계열의 가수들이었다. 그러나 그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안좋은 엄격때문에 때가 끌어버렸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관심이 되고 있는 두사람이 바로 김민기와 한대수이다.

한대수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라는 분위기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아니었다. 즉 시나 미술과 마찬가지로 음악에서 그자신의 성장환경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볼때 그의 음악에 있어 미국적인 풍을 강하게 띄고 있는 것은 그가 미국적 분위기에서 성장한 연유라 할 수 있다.

((주)그의 음악에 있어 I-IV-V 탄생된 것이 미국의 대다수의 포크 송 이었고, 그 분위기에 젖어있던 한대수의 음악세계였다. 즉 이러류의 분위기의 정신적계기는 지나힐정도로 풍족한 문명사회에 대한 비판, 비인간화에 대한 도전, 소외현상의 극복등이었다. 그러나 그런 현상들의 발출구를 마련한 방법들은 방랑, 폭력, 무절서, 나체주의, 성적개방등의 보헤미안적 남만주의였었으며, 히피문화였다. 대개 70년대초 한국포크음악의 선풍도 이런 분위기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가수들은 단순한 미국문화의 무비판적 수용으로인해 철사자의 장발 대마초등에 젖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외미에서 우리는 당시 팔악했던 가수들의 한계와 한대수의 한계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 한대수는 귀국과 더불어 발전해 나간다.

…가버린 플발위로/나를 걸게 해 주세/넓과 새들의 소리 들고싶소/울고 웃고 싶소/내 마음을만져주/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테요…… (중략) 비와 천둥의 소리/이겨증을 주겠네/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테야…… (중략) 광야는 넓어요/하늘은 토 주리요/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행복의 나라에서>

1절에서 가버린 플발위를 걸게해 달라는 봄과 새들의 소리를 에타게 갈구하는 자신의 수동적 외지가 2절에 오면 비와 천둥이란 고난을 이겨 내서 희망을 향해 매진하는 능동적 외지로 발전하여 마침내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는 광야와 하늘의 푸한하고 희망찬 미래 건설을 위해 자신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 다같이 행복의 나라로 가자는 힘찬 의지를 보여준 다. 즉 이는 작자가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한대수의 작품세계는 우리의 상황과 더불어 그들의 작품세계를 살펴보았듯이 처절한 싸움을 지속했던 그들의 뒤를 이어 요즈음 각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음악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젊은 국악인들과 시인 종교인들을 중심으로도 새노래, 우리노래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인 듯싶다. 본명 우리현실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요가 우리에게 좋은영향보다는 나쁜영향을 더많이 끼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적불명의 노래와 요란한 몸짓과 괴성으로 대중들을 현혹하는,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외국음악이 우리의 주체성마저 손상시키면서 더욱 그 도를 심화시키는 현실에 있어, 비록 소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이것의 시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못 다행한 일이라 할 수있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해나가야만 옳을 것인가? 또한 작자를 역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하면 노래를 사회현실과 잘 연계시킬 수 있는가에 대육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황, 좌절 그리고 극복

사설

반문명적 폭력행위

지난9월1일 정기항로 (長期航路) 를 따라 항시 운항하는 우리의 비무장 KAL여객기가 소련전투기에 의해 불의의 공격을 받아 격추되어 2백69명이라는 무고한 생명이 북태평양의 깊고 차가운 물속에서 고혼(孤魂)이 되어 버렸다.

20세기의 문명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반문명적 폭력행위에 대하여 세계인 (世界人)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성난 목소리를 한데 모아 소련의 살인마적 만행을 규탄하기 시작했다. 미우기 유엔안보리(安保理) 까지 긴급 소집되어 이념과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그 행위의 바보더성과 비인간성을 단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소련당국의 납득할만한 진상해명과 사고지역의 답사협조, 피해국가들에 대한 사죄와 손해배상, 사전관련자의 엄중처벌,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KAL기가 첩보활동을 위하여 자기네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한 자위 (自衛) 조치라고 발뺌뿐 오히려 한국과 미국 등 희생당사국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비록 KAL기가 전략적으로 민감한 그네들의 영공으로 잘못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눈에도 식별할 수 있는 다국적(多國籍) 승객을 태운 비무장여객기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자위 운운의 명분은 정상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그들의 생떼르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구기 미국과 일본이 공개한 소련전투기조종사와 지상기지와의 교신내용을 볼 때, 특히 KAL기가 비상등을 깜박이면서 <순응> 의 의사표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전투기들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제 2백69명의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여객기의 원상복귀(原狀復歸)가 불행하게도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피해당사국과 더불어 세계여론을 동원하여 우리의 요구조건을 관철하는 일이며 또한 이번의 사건이 보여준 가슴아픈 교훈을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자세와 각오를 새로이 다짐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자. 만일 이번의 사고기가 비록이나 일본등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소련에 대한 압력수단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의 여객기라면, 소련 요격기가 감히 자위의 명목으로 민간여객기를 격추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물음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분노와 항의만 있을 뿐이지, 소련과 맞대놓고 직접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 (直視) 하는 가운데 하루 바삐 강력한 힘을 길러 민족의 자존 (自尊) 과 국민의 안녕이 보장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이 힘의 결집은 분노와 항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각계각층이 자기의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집된 힘이 크게 등록했을때 다시는 이러한 국민적 비극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소련등 강대국의 치욕과 폭력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유명을 달리한 16개국 2백69위 (位) 의 영령 앞에 엄숙히 고개를 숙여 그 영혼을 애도하는 바이다.

매체 analysis

▲수천년전 목초를 따라유랍하면 유목 민족,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창세의식이 있었다.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좋았더라> 이렇게표현하고도 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되니 이는 첫째날이었다.> 하여 되풀이 하여 감격적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간결하고 감동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는 몇천년의 시간과 수만 투쟁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있거라> 하면지체없이 <있었다> 로 되며 여섯째날까지 계속되었던 인간들의 힘찬 염원이 현재는 <있거라> 하고 외쳐도 들어도 나타나기는 커녕, 꺼져가는 생의 불꽃과 인간의 결구는 돌은혁도 없고 취투르는 학살의 도끼 밑에 권권 공공하게 되었다.

▲무수한 희의 목록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속죄방법, 처벌까지 만들어 이방법을 통해서 지배계급이 덕이를 장만하고 인간들을 거미줄에다 얼매인 모세의 오서 (五書) 를 보고있노라면 인간이란 것의 그 비열함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시간원근의 렌즈를 통해 비쳐보면 더욱 확연하다. 그러나 그날의 비열함과 오늘날의 비열함을 비교해보면 전일의 그것을 앞고 자행하는 비열이니 오늘날의 그것이 더욱 악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는 도덕서(道德書)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희생물이 끌렸었어도 이 모양이니 원죄라는 의식을 제조행해 볼 필요가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이브의 남편밖에 못되는 아담을 만들때 들었던 재료비, 수공비 등등을 합치면 월가(限値)는 얼마나 될른지.

현대 보험회사가 계산한 생명의 가치는 5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사태에 대비해 유가족이 최저생활을 유지할수 있으려면 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계산인 것같다. 해부학자들이 따진 사람의 상품적 가치(?)는 5천 8백원 정도로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그것도 70년의 경주에는 3백원으로 계산 했었는데 인플레의 영향으로 크게 오른것이라고 한다.

5천8백원(?)

이 「6천원 짜리인간」은 <먹어선 안된다> 는 반가지 물건속에서 먹어야 살아있으며 <해선 안된다> 는 사상속에서 부슨 짓이든 하면서 삼다. <안된다> 는 규정을 수록한 목록의 몸바귀에서도 <된다> 는 여유를 끈질기게 찾아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가보다. 인류가 스스로의 심성 깊숙이 감지 규정을 자각하기 까진 또 얼마만한 댓가를 치뤄야 할른지 알을하기만 하다. <명>

東一레나운

정통 캠퍼스 웨어
RENOWN
TRADITIONAL

RENOWN TRADITIONAL은
젊은이의 품위와 지성미가 넘치는
IVY LOOK의 캠퍼스 웨어입니다.

IVY LOOK :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 가운데 8개의 유명 대학으로 결성된 미식축구 리-그를 IVY리-그라고 하며 이들 대학의 학생과 졸업생들이 즐겨입는 하나의 패션스타일을 IVY LOOK라고 합니다.

RENOWN

취급점 :
■서울지역백화점 : 롯데·미도파·신세계·개발·한양소원
■대전점 : 뉴코아소망·삼호소망·선방프
■지방지역백화점 : 동아·대구·유스 외

자매품 / Simple Life ARMOUR LINER

탐방취재

용인캠퍼스 극복해야할 제1의 과제

——캠퍼스의 내적 성숙을 위해

캠퍼스발전의 주요 관건인 외적인 성장과 아울러 병행되야 할게 있다면 캠퍼스의 주인인 학생들의 질적인 수준과 의식구조의 성향이 어떠하냐에 있을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용인캠퍼스는 이제 나름대로의 착실한 내실을기해 독특한 학풍과 「뼈대있는 캠퍼스기강」을 초기부터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용인캠퍼스 학생들이 극복해야 할 제1의 과제는 이른바 「분교 컴플렉스」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근거는 다방면에서 설명될수 있으나 그 중 몇가지만 살펴보면 지금까지 일어난 「학적문재 소요」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된다.

통일학적 요구의 이면에는 「학교측의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시, 그의 이행을 요구하는 면도 있지만 「통일학적으로 되면 좋지만 안되면 할수 없다」「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지」하는말을 흔히 하고 있는점은 현재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자신이없어 나타나는 현상일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생활 연구소가 지난 한학기 동안 상담한 학생들의 주요 상담내용별 분류를보면 유학관계 30%, 전·부전공 21%, 진로, 취업 13%, 학업성적 7%, 이성·교우 6%, 성격 11%, 병역 5%, 건강 7%로 나타났는데 이중 30%를 차지하는 유학상담은 외국선호도의 높음과 탈락에 의한 불안, 장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인하는것으로 본다고 정영윤교수(교직과목·생활연구소장)는 풀이했다.

그리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과 생활에 임하는 자세는 2종류로 대별되는데, 자신감을 지니고 앞길을개척해 가는 학생과 자기비하와 현재의 충실치 못한 의미없는 대학생활에 대해 자신의 노력부족이 아닌 여타요인으로 돌려 점점더 학교생활에 취미를 잃어가는 부류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캠퍼스 다운 분위기 조성이 아직은 미비한 상태에서 이런면에 의해 전적으로 관단한다면 무리가 없지 않으나 언제고 「분위기 조성시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될 일이라 본다.

이밖에도 학생활동에서 나타나는 참여도의 빈약성과 대외에서「자신의 위치」를 자신있게 밝히는데 주저하는 경우등으로 미루어 보아도「현재의 생활」에 컴플렉스가 있다고 본다. 이중 참여도의 빈약성은 실로용인캠퍼스의내적인발전에심각성을던져주고있다.

호국단 김영숙 여학생부장은 「지난 5월13일 휴게실에 여론함설치 이후 한통의 건의서도 접수된적이 없을뿐 아니라, 강연회등 각종행사시 빈틈없는 준비보다 학생동원에 더 곤욕을 치른다」면서 학회의간부를 맡고있는 여학생이나 일반학생 모두가 한결같이 참여도가 낮아 무엇을 하려해도 의욕이 없음을 실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요인은 곧 학교에 대한 애착심의 결여와도 연관되지만 교통시간의 제약, 전통적인 대학문화의 미성숙 지방소재 학교라는 인식에서 기인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불식을 위해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캠퍼스에 대한 긍정적인 재인식과 실력의 배양으로 자존의식의 함양을 해야할것과 대학생활을 영위하면서 유대감을 가질수 있는 「자신의 위치」를 찾는 길이 급선무일 것이다.

다음은 용인 캠퍼스학생들의 「학문수혜의 폭을 확대」할것과 시간강사의 비율이 높음은 많은 학생들에 의해 지적되고있는 사항이다. 83학년도 2학기강의 시간표에 의하면 서울캠퍼스의 영어과 3학년의 전공선택 범위가 10개인데 비해용인은 6개에 불과하며 여타학과의 경우도 1~2개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격차의 근본요인은 학생수의 차이와 관계되나 내년부터는 설치된 전과에대해 전강좌를 개설하게 될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또 고학년의 시간강사의비율이 높음에 대해서는 「일부학과에 한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반영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학기 용인캠퍼스에 출강한 교수 210명 가운데 시간강사 (T·A·외대강사)는 95명으로 전체의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기서「T·A는 용인캠퍼스의 경우 1년계약으로 상주하다시피 할 뿐 아니라 실력면에서도 인정된 강사」라고 설명하고있으나 대학이 기능적인 지식전달 집단만이 아닌만큼 우수교수와 경륜있는 전임교수의 확보는 학생지도, 대화 등 각방면에서 대학수준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 졸업생 6개학과 120여명에 대한 진로 취업 알선을 위한 제도적인 기구의 설치는 한해의 행사로 끝날 성격의 기구가 아닌만큼 서울캠퍼스의 「정착된제도」에 의한 상호보조와 「용인캠퍼스의 현실과 여건」을 비교검토해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교내질서의 유지와 지성적인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자세에 대한 지적을 사소하고 상투적인 언급일 것 같으나 바로 이러한 사항의 실천을 통해 대학의 학풍과 전통의 확립에 기초가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져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용인캠퍼스학생들의 발이며 어쩌면 학업을 위한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통학과정에서의 난잡함은 필히 자각하고 고쳐져야 할 일인데, 음주후 승차, 차내낙서, 승하차시 질서유지, 차내언행의 선별문제에 대해서는 용인캠퍼스 학생스스로가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는 점으로 본다. 아울러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교내활동 참여도의 낮음은 앞서도 지적되었고 비단 용인캠퍼스학생뿐만은 아니겠지만 유행에 민감해 「학생답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각자가 자중해야 할 것이다.

「캠퍼스 주인공」들의 적극적인 캠퍼스생활 자세 요구돼
학문 수혜의 폭넓힐 전·부전공의 확대 필요
학생활동 참여의 빈약성은 유대감결여 때문

대학생활속에서 「대학생다운 분위기」를 갖추기위해선 내외적인면에서 고루 성숙시켜 나가야할 것인데 한쪽에 치우친 「대학생 다운 분위기」는 결국 「절음발이 대학 생활」을 하는 셈이 되지않나 생각된다.

이 외에도 교내시설의 (도서관·Lab·사운드라이브러리·AFKN시청실·체련장등) 적극적인 활용부족에대해 세세히 살펴보지 못한 점을 밝히면서 캠퍼스 발전은 비단 학교나 학생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캠퍼스 주인공」들의 적극적인 캠퍼스생활 자세가 요구 된다. <박동규기자>

도서관의 책들이 잠자고 있다

남아수독오거서 (男兒須讀五車書) 라는 옛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독서의 중요성은 주지되는바이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산재해있는 각종책들,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통독해도 다감당하기 어려운 분량의 책이다. 따라서 주변의 책들을 효과적방법으로 선택해서 읽는다는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에 본교생들의 독서량과 읽혀지는 종류가 자못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얼마전 본교생들의 독서취향과 분류별독서량이 밝혀져 많은 관심을 끌고있다. 이를 토대로 본교생들의 독서전반을 분석해 본다.

지난 1학기 동안 교직원을 포함한 본교생들이읽은 총 독서량은 10만7천552권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시기의 9만4천931권보다 약2.7% 정도가 불어난 숫자이다.

도서관이 밝힌 7월말 현재의 분류별 도서대출현황의 누계는 대출계가 1만5천252권, 과제실이 7만6천918권으로 한달평균 일인당 약2권 정도가 읽혀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밝혀진 분류별 대출현황으로분석되어진 두드러진 현상은 본교생들이 거의 책을읽지 않고 있다는 점과 독서 취향이 문학과 사회과학편중 현상을 보이고있다는 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방법의 무지등 독서풍토의 전반적 면들이 엿보여지고 있다.

우선 본교생들의 독서취향을 보면 1위가 문학(한학기간 3만6천536권) 2위가 사회과학 (2만8천219권) 3위가 철학 (9천967권) 순으로 나타난데 비해 역사나 과학, 종교, 예술분야등에서는 소홀한 현상을 보이고있다. 특히 어학의 경우 본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과학분야의 33.9%에 훨씬 못 미치는 7.1%에 해당 하고있어 묘한대조를 이루고있다. 또 순수과학이나 종교 예술등의 경우도 전체독서량의 1.9% 정도에 해당되 독서에 있어서의 심한 편중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근래에 들어 비교적 많이 읽혀지고있는 역사관계서적의 경우도 전체 독서량의 8.5%밖에 되지않아 독서풍토전반에 걸친 반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대출계와 과제실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출방법을 통해 이용된 현황을 보면 대출계의 이용이 총대출의 16.6%(1만5천252권) 과제실 이용이 83.4%(7만6천918권)로서 대부분의학생들이 과제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주요 도서 분야별로 살펴보면 별표와 같다.

또한장서 비치현황을 보면 대출계에 약22만권, 과제실에 약3만5천권 정도의 책이 비치되어있음에도 총대출에있어 과제실 이용률이 83.4%를 차지하는것은 도서관 이용에 많은 문제점을 시사해주고 있다하겠다.

장서이용의 극대화 위해 도서관 이용법 개선 요망돼
본교생 독서량 한달 평균 2권 정도, 사회과학·문학편중 현상

	대 출 계	과 제 실	이용총권
철 학 (100)	720권 (8.7%)	7,516권 (91.3%)	8,236권
사회과학 (300)	3,433권 (13.7%)	21,650권 (86.3%)	25,083권
문 학 (800)	5,684권 (18.6%)	24,947권 (81.4%)	30,631권
역 사 (900)	1,129권 (14.8%)	6,517 (85.2%)	7,646권

이런 기현상의 문제점은 2가지로 집약되어지고 있는데 첫째 학생들이 현재 본교에서 채택하고 있는도서관 이용법인 듀이법 (100단위로 분류되는 도서 분류법)을 잘몰라 이용을외면하는 점과 둘째 폐가식의대출계보다 개가식의 과제실이용이 훨씬 용이할뿐 아니라 눈으로 직접 도서를 확인,필요한 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미있는 현상은 학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비치된 대출계를 외면하고 과제실을 80% 이상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대학원생이나 교직원들은 대출계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본교생들의 독서량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 독서의 편향성, 효과적인 도서관 이용법을 외면함으로써 나타나는 대부분 장서의 사장(死藏) 등으로 밝혀졌다.

올바른 독서풍토를 정립함이 진리탐구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장서의 효과적 이용은 그 첩경이 아닐수 없다.

이에 독서에 대한 각자의 반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서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법의 개선, 폐가식 대출방법의 개선등을 서둘러,보다 많은 책들이 용이하게 대출 될수있어야 할 것이다. <이경진기자>

감소된 장학금에 집중된 관심.

본교는 이번학기에 교내장학금으로 1942명에 7억5천6백만원을, 그 외에 외부장학금으로는 18명에게 63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같은 장학금 지급은 총 지급액과 수혜인원에 있어서 지난학기 (2,037명에 8억2천8백만원)보다 대폭 감소됐음을 알수있다.

이와같은 장학금 거급액의 대폭감소에 대해 학생처 관계자는 「휴학생의 증가, 그리고 등록률의 저조」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휴학자증가와 등록률의 저조가 장학금 지급액의 감소에 근본적인원인은 될수없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장학금의 다소 감소는 감수한다 하더라도 교내 장학금 중에서 신입생 입시 장학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일반 성적장학금이 많이 줄어 들었다. 이번학기에 지급된 교내 장학금 7억5천6백만원중에서 신입생 입시 장학금으로만 2억7천만원이 지급된 것이다.

신입생 입시장학금의 경우 우수신입생유치를 위한 교육지책임은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 이외의 별도의 재원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문교부의 지침임은 물론 대부분 학생들의 바램인데도 불구하고 본교의 경우 일반 성적장학금중에서 입학시 보장장학금이 지급되고있음은 일반 학생에게는 크게 불리하다.

따라서 이번학기에 단순히 성적상장학금만을 살펴보면 1학년은 5천7백40만원, 2학년은 1억3백만원, 3·4학년은 1억8백만원밖에 지급이 되지못했다. 올 해의 경우 「졸업정원제실시이후 입학 학생인 1·2·3학년의 경우 등록금의 20%를, 4학년의 경우 입학시의 예대로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문교부 방침을 보더라도 본교는, 장학금지급에 불합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신입생 입시장학금은 별도의 재원서 마련돼야
교내장학금중 우수신입생장학금 비중커

따라서 신입생 입시 장학금은 반드시 별도의 재원에서 마련해야 하고 신입생 입시 장학금으로 지출되는 재원을 다른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외에 장학금 지급에있어서 대부분의 장학금이 거의 성적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음도 다시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 과외금지 이후 등록금 조달이 훨씬 어려워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누차 지적된 바지만 성적우수자에대한 「포상」의 의미보다는 더 많은 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복지적 측면으로 의미전환하여 가사빈곤자에 대한 더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한편 등록금 마련을 위한 장학금 지급외에 학생들은 학자금 융자의 확대도 크게 바라고 있다. 이번학기에 융자를 받은 학생은 장기 260, 단기 675 명으로 학생들의 바램과는달리 지난 학기보다 오히려 장기는 14명, 단기는 66명이 감소됐다. 학생들의 신청에비해 절대 부족한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장학금의 지급을위하여 학교에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학생들의 등록에 편리를 도모해야 할것이며 아울러 동문장학금을 비롯한 외부장학금의 영역확대를 위하여 노력을계속해야 할것이다. <안수훈 기자>

독자추신 p·8

허공에 뜬 일주일

김재경

개강 첫주의 강의 좀더 충실 기했으면….
사전 휴강공고로 귀중한 시간침해 없어야

개강한 지도 어느덧 2주일이 지났다. 봄 학기에비해 두서너주가 부족한 가을 학기는 중간은 허공에 뜬 상태에서 시작과 끝만 겨우 느낄 수 있는 시기인듯하다. 개강한 첫주엔 강의가 없기도했다. 첫시간은 주로 다음시간부터 해야 할 교재를 소개하거나 강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언급하는 시간이다.

물론 첫시간엔 출석하는 학생들도 소수이고보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으므로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첫시간이 오리엔테이션등 강의내용의 소개라 하더라도 첫시간인만큼 궁금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어떤 교수가 이번 강의를 맡게 될른지 우리들로선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10분 20분 30분이되도록 오시지않는 교수님, 성급한 학생들은 일어서서나가버리고 끈질긴(?) 학구파들은 그래도 곧 오시겠지 하며 더 기다리기도 한다. 기다리다 못해 교학과에 가서 알아보기도 하지만 별 신통한 답변을 얻지 못한다. 대답 또한 무책임하다. 담당교수들로 부터 연락을 못받았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는 비단 이번 학기 우리 학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닐 것이다.

학기가 바뀔때마다 전공보다는 교양과목이 이런현상이 더 두드러진 듯하다. 이럴 경우 해당 교학과는 학생을 위해 좀 더 친절을 베풀수 없는 것일까? 개강한 첫주는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좋다는 불문률은 어디에있는지 찾아보기 어렵다.

또 하나의 바램이있다면 사전에 미리 공고하지않고 학생들의 귀중한 시간을 침해하는 휴강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독일어과 2>

이룸 크로니클

북극곰의 만행

○…연일 「제3국」이 아닌「북극곰」의 만행을 규탄하는 외침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일각에선 때리는 시어머니도 밉지만말리는 시누이도 밉다는 표정.

피격된 KAL기가 두시간 넘게 항로를 이탈,소련 영공에 깊숙이 들어간 사실을 맨처음 안것은 미국과 일본. 정보체계 누설을 우려, 사고기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데, 설마하니 민간여객기에 손을 대랴 했던 그들의 한가닥 기대가 「무르만스크」때의 기충사격에서 미사일로 무참히 깨진 것.

북극곰의 악랄한 발톱에 269명이 비명에 희생됐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바, 크로니클자 그들의 원혼을 달랠길 없어….

○…동방의 예의지국으로 알려진 이땅에 삼강오륜이 붕구나무 섰다는 말을 들은지는 오랜듯 하오이만 이제는 캠퍼스에까지 그여파가 미친듯.

그 앞뒤는 대충 이러한데, 8월말 배출되었던 후기졸업자중 일부가 동문후배들에게 환송파티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후배동문의 무성의인지 택일에 살(殺)이라도 끼었는지 예정 인원에 훨씬 못미치는 후배들이참석해 조촐하다못해 초라한 잔치가 되었다는것.

그때까지 묵묵하던 졸업선배결국은 『졸업하고 나니 금방×팔리는구나』라며 한마디를 던졌다니 실추된 오륜에대한 한탄도 이제는 후배의 각성으로 끌어 올려야만 하겠삽.

○…요즘 왕산골 흡산들 사이에서는 『가위질하는 것은 엿장수 마음이고 차시간 지키는 것은 운전수 마음』이라는 새로운 속담(?)이 유행할 판.

등교시간에 차들이 시간을 제대로 안지키고 여러대가 한꺼번에 가버려 차시간 맞춰나온 흡산들은 여지없이 지각을 해야 한다고.

「숭어가 뛰면 망둥이가 뛴다」고 덩달아 운전대잡은 기사아저씨까지 뛰어서야 어디 위험해서 쓰겠소.

○…맑은 하늘 아래 두 여학생의 묘한 표정이 있어 뭇 흡산들의 시선이 오갔는데, 사연인즉, 토요일 오후 체육시간에 집합호르라기를 못들어늦게 도착한 두여학생을 모교수님께서 서로 바치기를 시키셨던모양.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했거늘, 명한 머리에 불건전한 정신이 깃들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흡산들의 눈길을 끄는 진풍경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어, 그야말로 다변하는 대학의 면모를 과시 하는듯 한데.

얼마전 문까지 꼭꼭 걸어잠근 소집단연구실의 열심파들이 한때 새로이 등장해, 이를 밤낮을 선풍기 바람까지 쐬가며 연구(?)에 임했다니, 알고본즉 미처 못말린 빨래감들이 그 주인공들이었던 것.

빨래감에 밀려난 흡산들,깨끗한 순서대로 줄도 주는 모양이라며 한마디씩.

○…요즘들어 데스크 위엔 기사원고뭉치보다, 취재시마다 겪어야 하는 학생기자들의 고충이 다발(?)로 올려지고 있는데….

취재차 방문한 기자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부처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양쪽부처에서 서로 미루는가 하면 이미 다른 기자가 다녀갔다는 연막술등으로 취재기자와의 옥신각신하는 일이 빈발 하고 있다고.

예부터 언론(言論)이 제약받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는건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바 기자기피증은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기자 기피증

9월호
현대 지성인의 교양 영어잡지

時事英語研究
주요기사
A Rebel in the Computer Revolution 컴퓨터 熱氣에 할 말 있다!!
America in Search of Itself 미국은 이렇게 변모했다
Still a Hobbled Giant 미국인들은 反共의 기력마저 잃었는가?
기획연재 ●당신의 어휘력을 진단해 봅시다 ●영터리영어 추방 캠페인 ●현대 영미시 세계 ●세계의 언어들 ●미국소설의 이해 ●과학수첩 ●무역영작문 ●관용어 해설 ●스크린영어 교실 ●현대영어의 源流 ●東洋古典英譯 ●한국 名詩 英譯·해설
신연재 유학書信의 작성例
칼라 화보 ● 이색스포츠 Scuba Diving ● Land of the Pure, Pakistan
특별기고 Innovations in Financial Markets
■ 한국대표단편 英譯 잔인한 都市
■ 실용 英 숙어해설/해외논조 ■ TOEFL Test/나의 유학기 ■ 考試영어/Men & Ideas ■ 성서문학/현상 퀴즈 ■ 이달의 국내외 톱뉴스 ■ 세계의 흐름 ■ Situation English ■ Seasonal Editorial
BOOK BONUS 남자를 만나야 남자가 생기지
영화대사 브레드레스

英語世界
상처입기 쉬운 올림픽 꿈나무
몰래 들여다 본 동식물의 침실
신연재 「영세」와 함께 경제를
● 졸음—그 원인과 대책 ● 생명의 기원에 새로운 서광이 비칠 것인가? ●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지는가? ● 외톨이들의 기술혁신
결국 어떤 사회가 진화를 거쳐 발전할 것인가?
영어 강좌 ●팝송 ●만화로 배우는 영어회화 ●방송영어 청취요령 ●페리여사 영어교실 ●당신도 TIME·Newsweek를 읽을 수 있다 ●TOEFL식 영어 모의시험
걸작추리 — 나의 친구여 몸부림치며 죽어가거라!!
영화대사 S.A.S.特攻隊

보너스 부 정기구독자 접수중!!

時事英語研究 값 2,500원
英語世界 값 2,300원
(株)時事英語社 정기구독 문의처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매어 쓸수있나?

■ 영어회화는 결코 몇개월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급하다고 입시방편으로 회화 카셋트 몇개 듣는 것으로 영어회화가 금방 숙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어회화에 왕도가 있다면 좋은 교재로 꾸준히 노력하는 길뿐입니다. 요즘 시중에는 무자격 저자들이 쓴 엉터리 회화카셋트들이 쏟아져 나와 과대광고로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읍니다. 25년간 오로지 좋은 영어교재 보급에만 힘써온 저희 시사영어사는 정말 「교육적인」 교재만을 「엄선해서」 권해드리고 있읍니다. 이제부터라도 회화를 제대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자의 권위와 메이커를 보고 선택하십시오.

New Horizons in ENGLISH
英語会話카셋트
자세한 우리말 해설판!

재미있는 삽화와 함께 배우는 '짧은대화' 중심의 영어회화 카셋트
「4S방식」의 새로운 학습방법을 도입한 「호라이존」 카셋트에는 American Idiom의 양념이 많이 쉬인 영어회화가 재미있는 삽화와 함께 담겨있읍니다. 또한 「짧은대화」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실생활에 써먹기가 쉽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주대상으로 한 이 카셋트는 군살없는 간결한 표현으로 생생한 구어 표현을 익히게 합니다.
전질: Text 6권+주해서 6권+카셋트 30개/값 150,000원

4S방식이란?
1 SHORT SENTENCES (짧은 口語표현) 「짧은대화」 중심이어서 외우기 쉽고 활용하기 쉽습니다.
2 SIMPLE TO LEARN (익히기 쉬운 학습) 실생활에 밀착된 생생한 화제가 「짧은문장」형태로 이어지므로 부담없이 간단하게 익힐 수 있읍니다.
3 SPEEDY PROGRESS (빠른 학습성취) 연상작용을 돕는 「재미있는 삽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빠른 학습성취를 이룰 수 있읍니다.
4 SPIRAL APPROACH (자동 복습방식) 나선식 계단(SPIRAL)을 올라가듯 진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복습이 됩니다.

전화: 서울(720)6828 (725)5064 (269)6823 (722)9761 부산(463)3007~9 마산(7)4596 울산(43)4307 대구(45)6890 (46)9041 광주(2)2376 대전(252)0032 전주(2)5328 인천(2)4122 수원(6)1478 강릉(2)2164 (株)時事英語社

세계의 낭만주의 <12>

허 인
<이태리어과교수>

이태리 ①

19세기 초엽 프랑스가 이태리를 지배할무렵 이태리는 극토 통일과 외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염원과 자각에 젖타기 시작했다.

그 당시 이태리 예술계는 프랑스를 모방하여 기교적인 년에 치우치는 고전주의가 만연하고 있었으나 1815년 나폴레옹이 실각하자 이태리 전역에서 민족합합이라는 봇짐가 번져 고전주의에 대한 반감이 이태리문학에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고전주의에 대한 반감은 정치적인 면에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예술, 문학에 있어서의 고전주의가 이미 퇴색하기 시작하면서 바야흐로 새로운 미학이론이 구라파지역에 싹트기 시작했고 특히 영국과 독일에서는 그 이론이 매우 활발하게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운동이 낭만주의 운동으로 빈모하여 문화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방면으로 등장했다.

고전주의가 형식과 이성 그리고 지성을 표현하는데 반해서 낭만주의는 내용과 상상력 그리고 직관을 강조하는 등식에 감상과 전통, 개인과 집단생활의 직접적이고도 자발적인 면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특히 계몽주의가 그 기초적인 성격면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등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확신하고 그 이상을 구현하는데 있어 인간의 능력을 과대하게 믿었고 만물을 마치 생명이 없는 기계와 같은것으로 만들어 이성과 세계주의(Cosmopolitism)를 찬양하면서 프랑스혁명의 정복적인 팔등을 가져오게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낭만주의는 봉건적인 정치체제와 지식적이고 민족적이며 정치적인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인간의 자발적인 힘을 해방시켜 자신의 시대와, 역사적인 소명(召命) 즉 자각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이태리 낭만주의의 문학은 역사소설이나 서정시등 장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을 통해서 민족적인 저력을 찾으려고 애썼고 또한 도덕과 종교 면에서 교회가 지닌 사회적 역할을 재평가하여 시민의 자유와 정의를 옹호할 있는 교회가 사회를 재생(再生)하는 힘을 찾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낭만주의는 뛰어나갈수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서 개인과 집단의 창조적인 활력을 재생가능